

어명소 차관, “추석연휴 철도안전에 만전 기할 것” 강조

- 철도치안대책·태풍 힌남노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… 직원 격려 등 현장행보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도현장을 찾아 치안 대책을 점검하고 시설관리 현황 및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 뒤 현장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
 - 또한, GTX 현장소장단 간담회를 갖고 GTX 추진단 확대 등 조속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하였다.
- 먼저, 9월 1일 서울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찾은 어 차관은 철도경찰 치안대책 및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관계자를 격려하였다.
 - 어 차관은 철도경찰센터·폭발물 탐지팀·대합실 등 일선 치안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“추석 연휴 국민들이 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경찰의 치안활동 강화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특히, 최근 항공기, 열차에서 동시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, 국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, 철도공사 등과 협조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9월 2일 0시경에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경부선의 노량진-영등포역 작업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작업을 당부하였다.
 - 코레일로부터 작업 상황을 보고 받은 어 차관은 “빈틈없는 유지보수는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시작이자 마무리”임을 강조하고, “7월 초 SRT 궤도이탈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로점검·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”면서,
 - 특히, “초강력 태풍 힌남노 예상경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있으므로, 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“유지보수 작업은 열차가 다니지 않는 심야에 주로 진행되는 만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삼아야 한다”면서,

-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‘프랑스 등 철도 강국이 시설물 점검, 보수작업에 효율화를 위해 기계화 등 첨단기술의 도입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개념의 예측유지보수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’고 언급하면서,
- “앞으로 인력 위주로 실시되는 도보 순회점검, 긴급·소규모 보수 작업에 사물인터넷(IoT) 검측 센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, 소형다짐장비, 레일자동체결장치 등 기계장비를 조속히 도입하여, 선진화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작업능률과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이어, 어 차관은 GTX-A노선 현장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'24년 적기 개통 및 안전 시공 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어 차관은 “수서~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‘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 개통을 위한 철저한 공정관리”를 당부하고, “특히, 터널 굴착 등 노반 공사와 후속 작업인 궤도·신호·통신 등 시스템 공사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”고 강조하는 한편,
 - “지하 터널 현장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요인들이 있으므로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”하다면서, “다양한 사고 상황별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현장에 즉각 적용할 것”을 요청하였다.
- 어 차관은 “지난달부터 GTX 전담조직으로 GTX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, 오늘부로 부서를 신설(9.2)함으로써 추진단을 확대 개편하였다”고 밝히며,
- “공사 중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없이 추진단에 건의해주길 바라며, 최적의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”며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.

2022. 9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